

포스코, 산소공장 사고 2명 사망

포항 파이넥스3공장에서 질식사 ... 2014년 1월 완공 차질 불가피

12월16일 오후 8시30분께 경북 포항시 포스코(POSCO) 산소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 2명이 숨졌다.

사고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3공장 주변 플랜트 산소설비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포스코건설 하도급 직원인 최모(53) 등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 2명은 오후 5시께 플랜트 산소설비(66m)의 60m 높이에 설치된 쿨드박스를 점검하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쿨드박스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을 분리해 인근 파이넥스공장 등으로 공급하는 장치이다.

파이넥스3공장은 생산능력이 200만톤으로 2011년 6월 착공해 2014년 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아직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질소 유출에 따른 질식사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17>